

한국아동문학사 서술방법론 연구*

—이재철 이후의 모색

원종찬*

국문초록

문학사는 현재라는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서술될 수 있는 진행형의 텍스트이다. 그런데 통사 체계의 아동문학사는 40년 전에 나온 이재철의 것이 유일하다. 이후로 수많은 아동문학 연구 성과가 축적돼온 만큼 새로운 아동문학사 서술이 절실하다. 관건이라면 일관된 시각과 체계를 지닌 아동문학사 서술방법론을 확립하는 일이다.

현재의 문제의식을 담은 서술방법론은 기존 서술방법론과의 대비를 통해 한층 분명해질 수 있다. 기존 서술방법론은 이재철의 것이 유일하기에 본고는 이를 항목별로 살펴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검토한 항목은 범위, 갈래, 시대구분, 시각, 기준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아동문학의 성립과 전개를 근대성의 문제로 바라보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한 고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아동문학은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제약 때문에 독특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아동문학의 주된 독자는 십대 중·후반이었다. 이는 장르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소년문예가의 활약이 왕성해서 어린이는 아동문학의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도 인정되었다.

크게 볼 때 한국아동문학사는 미완의 근대 기획을 완수하려는 지향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본고는 이런 한국적 특성을 제대로 해명하려면, 올바른 역사주의 시각, 탈냉전의 시각, 탈근대주의 시각, 탈식민주의 시각, 엄밀한 실증적 방법, 확고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wjc92@hanmail.net

한 문학적 관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 주제어: 아동문학사, 서술방법론, 이재철, 시대구분, 식민지 근대성, 역사주의, 탈근대주의, 탈식민주의

목 차

- | | |
|-------------------|-----------|
| 1. 새로운 아동문학사의 필요성 | 4. 시각과 기준 |
| 2. 범위와 갈래 | 5. 마무리 |
| 3. 시대구분 | |

1. 새로운 아동문학사의 필요성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문학사는 현재라는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서술될 수 있는 진행형의 텍스트이다. 새로운 아동문학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 지난날의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저히 달라진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인 외에도 어느 자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각차가 발생한다. 요컨대 아동문학사는 움직일 수 없는 과거 사실을 다루더라도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구성물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수(複數)의 아동문학사가 공존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통사(通史) 체계의 아동문학사는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가 유일하다. 그밖에는 회고록 성격 이거나,¹ 갈래별 서술이거나,² 이재철의 학문적 성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

1 윤석중, 『한국아동문학소사』, 『아동문학의 지도와 감상』, 대한교련, 1962.

2 유경환, 『한국현대동시론』, 배영사, 1979;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류덕희·고성휘, 『한국동요발달사』, 한성음악출판사, 2006;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해서 요약 재정리한 것들이다.³ 이재철의 아동문학사와 경쟁하는 아동문학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재철의 학문적 성과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자료의 축적과 해석의 성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재철의 아동문학사는 무려 40년 전에 나왔고, 오늘날 아동문학 부문은 더 이상 연구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그간 수백 편에 이르는 아동문학 석·박사 학위논문과 그 몇 배에 달하는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관건은 일관된 시각과 체계를 지닌 아동문학사 서술방법론의 확립일 테다.

다음으로 과거와 같은 전방위적 통사 체계의 문학사 서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론의 전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거대담론에 비판적인 탈근대론과 함께 ‘민족+문학+역사’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탈근대론이 떠오른 이후에는 한국문학사 서술도 거의 멈춰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통용되고 있는 문학사 대비 아동문학사의 양적 불균형도 문제려니와 아동문학 쪽에서 문학사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

탈근대론에 의할 것 같으면 근대적 개념의 문학사는 위계와 차별이라는 억압의 산물이다. 제도적으로 권력화된 주체가 거기 속하지 않는 타자들을 배제하고 억압해 왔다는 것이다. 아동과 여성은 전형적인 타자에 속한다. 한국문학사 서술에서 아동문학이 배제돼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아동문학사 서술은 주류담론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지닌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아동문학 안에서 재생산되는 억압, 즉 중앙권력을 향한 주류 아동문학의 모방과 추수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1995; 『우리 동요 동시 이야기』, 우리교육, 2004; 『우리 동화 이야기』, 우리교육, 2004.

3 석용원, 『아동문학원론』(증보판), 학연사, 1992;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탈근대론이 통찰한 근대 거대담론의 억압성에 대해서만 유념한다면, 문학사 서술은 미시적·실증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적잖이 기여할 수 있다. 문학사는 현상의 연대기적 나열이거나 개별 작가·작품론의 단순 집합이 아니다. 개별 연구와 문학사 서술은 나무와 숲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이 주어진 개별 작가·작품론과 시대구분에 따른 대표 작가·작품의 선택 배열을 요체로 하는 문학사 서술은 서로 조응하면서 대화적 관계를 이루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아동문학 부문의 경우, 각론 성격의 연구는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문학사 시대구분과 전개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재철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발굴 작품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과장스레 추어올린다는지 한 논문 안에서 새로운 내용과 낱은 인식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아동문학사 서술이 시급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에 본고는 이재철의 아동문학사와 관점을 달리하는 새로운 서술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서술방법론은 일종의 설계도로서 범위, 갈래, 시대구분, 시각, 기준 등으로 이루어진 통일된 서술체계를 가리킨다. 현 시기의 문제의식을 담은 서술방법론은 기존 서술방법론과의 대비를 통해 한층 분명해질 수 있다. 기존 서술방법론은 이재철의 것이 유일한 만큼 이를 항목별로 살펴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주효하리라고 본다.⁴

4 이재철의 아동문학사 서술방법론은 여러 차례 발표되었는데, 시대구분의 세부사항에서만 약간의 변화를 보일 뿐이고 큰 틀에서는 동일한 관점이 지속되었다. 시대구분의 세부사항이 바뀐 자료를 발표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째, 『한국아동문학사의 시대구분 시고(試攷)』(『대구교대 논문집(인문과학편)』 1집, 1965), 둘째,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의 서론에 해당하는 ‘한국현대아동문학사 방법론 서설’, 셋째, 개고판 『아동문학개론』(서문당, 1983)에 포함된 ‘한국현대 아동문학사 방법론 서설’ 등이다. 『아동문학개론』(문운당, 1967)에 포함된 ‘한국아동문학사’의 서언은 ‘한국아동문학사의 시대구분 시고’를 요약한 것이다. 『아동문학의 이론』(형설출판사, 1983)에서는 개고판 『아동문학개론』의 시대구분을 반복했고, 『한국아동문학연구』(개문사, 1988)에서는

2. 범위와 갈래

아동문학사를 서술하려면 먼저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아동문학을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범주화(範疇化)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동문학은 문학의 하나로서 아동에게 읽힐 것을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을 가리킨다. 운문과 산문의 전 영역에 걸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갈래가 존재한다. 성장단계에 상응해서 그림책, 동화, 아동소설, 청소년소설 등 다양한 분화가 이뤄지는 것도 아동문학의 한 특징이다.

이재철은 “아동문학이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성인에게 읽힐 것을 목적으로 창작한 특수 문학으로서 동요·동시·동화·아동소설·아동극 등의 장르를 총칭한 명칭”⁵이라고 개념을 밝혔다. 아동문학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지만 성인독자를 감안해서 ‘동심을 가진 성인’ 까지도 아우른 것인데, 원칙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을 읽는 성인은 어디까지나 이차독자에 속한다. 이를 ‘동심을 가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동심을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라 아키다 우자크(秋田雨雀)의 말대로 “인류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영원한 아이’”⁶의 의미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성인에게 동심은 하나의 지향점에 가깝다. 따라서 ‘동심을 가진 성인’은 ‘동심을 지향하는 성인’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표현에서 즐거움과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성인은 아동문학의 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성인독자를 ‘동심을 가진 성인’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따져볼 필

「한국아동문학사의 시대구분 시고」를 반복했다. 맨 처음 발표한 시대구분론과 맨 나중 발표한 시대구분론이 똑같은 것은 20여 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변화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본고는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의 서론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5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23면.

6 가와하라 카즈에 지음, 양미화 옮김,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2007, 154~155면.

요가 있거니와 아동문학을 정의하는 데에서 아동독자와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아동문학은 누가 뭐라 하든 아동독자로 인해 성립·유지되는 문학의 한 갈래이다. 발생론적으로는 근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대문학의 한 특수 갈래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재철의 서술방법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고전아동문학’의 범주를 설정한 점이다. 다루는 시기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제목에 ‘현대’를 붙인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현대아동문학’은 이전 시기의 아동문학을 전제로 하는 명칭이다. ‘고전아동문학’은 바로 ‘현대아동문학’의 전통을 해명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아동문학의 전통과 근대사적 배경’이라는 항목 아래 고전아동문학의 양상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이재철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전하는 신화와 창세설화, 참요(讖謠)적 기능을 가진 전래동요, 구지가, 서동요, 판소리 등을 “동화문학적 원형”, “동요문학적 원형”, “아동극의 원류”로 볼 수 있다면서 고전아동문학의 범주에 넣었다.⁷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적 기원을 지닌 아동문학을 근대 이전까지 소급적용한 데에서 비롯된 혼선이다. “현대아동문학은 근대정신의 소산”⁸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근대정신이 고전아동문학과 현대아동문학을 나누는 기준임을 알 수 있는데, ‘고전아동문학’이라는 명칭은 어불성설에 가깝고 ‘현대아동문학’이 아니라 ‘아동문학은 근대정신의 소산’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아동문학의 출현이 근대적 현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학계의 상식이지만, 과거에는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사실에 착안해서 문학사의 큰 분기점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었다. 아동의 ‘탄생’ 혹은 ‘발견’이라고 표현되는 오늘날의 상식은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의 『아동의 탄생』이

7 이재철, 위의 책, 26~28면.

8 이재철, 위의 책, 29면.

나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등과 함께 확산된 인식론적 전환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고전아동문학’과 관련해서 나타난 혼선은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재철은 “우리의 고전 아동 문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이라는 양식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반 문학 속에 거의 혼재해 왔다는 사실, 특히 기록문학 쪽보다는 구비문학적 전통 속에 그 자취와 계보를 온전히 담고 있다는 사실이 한 특성”⁹이라고 밝혔다. 양식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굳이 고전아동문학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은 아동문학의 개념·정의·범주를 파악하는 데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소급적용에 대한 자의식이 없이 설화, 민담, 고전소설 등을 ‘전래동화’로 지칭하는 문제점도 새로 정리돼야 할 사항이다.

다만 조선조 후기에 와서 설화계 소설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전래동화의 소설화 경향에 힘입어 콩쥐팍쥐전, 별주부전, 흥부전 등의 동화적 기록이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동화문학적 정착이 아니라 전래동화의 성인소설적 재구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으로 수집채록된 무수한 전래 동화의 질적 수준과 양적 분포로 보아 우리의 고전아동문학이 결코 빈곤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¹⁰

근대 이후에 아동용 텍스트로 정착한 ‘전래동화’와 ‘구비설화·콩쥐팍쥐전·별주부전·흥부전’ 등은 구별돼야 마땅하다. 그럼 이재철의 서술방법론에서 ‘고전아동문학’과 관련된 부분은 갈래명칭만 바꾼다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고전아동문학’과 ‘현대아동문학’은 서술 대상 곧 범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시대구분에 따른 명명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원의 문

9 이재철, 위의 책, 26면.

10 이재철, 위의 책, 27면.

제를 희석시킨다.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재철의 서술방법론은 성인문학 쪽의 서술방법론을 아동문학 쪽에 무리하게 적용한 데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는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화사, 1956)와 짝을 이루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한국문학사 쪽에서는 편의상 근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서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근대 이후의 문학사 서술에서 근대 기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식문학론, 내재적 발전과 외재적 발전론, 전통론 등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이재철이 범위를 ‘현대아동문학사’로 설정하고 ‘고전아동문학’과의 연속성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아동문학은 고전아동문학과 단절되어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일반의 통념은 그릇된 것이다. 현대 아동 문학이 지니고 있는 형식적 내용적 특성들이 그대로 우리의 고전 속에 내재해 있다.¹¹

아동문학의 근대적 기원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 아동문학이 한국 고전문학과 이어져 있는 현상은 한국 근·현대문학이 한국 고전문학과 이어져 있는 현상의 반영이다. 아동문학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근·현대문학과 이어져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갈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아동문학→현대아동문학’이 아니라 ‘고전문학→근·현대문학/아동문학’의 관계등식이어야 하며, 아동문학사의 범위와 갈래는 근대 이전에는 아동문학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인식론적 전환에 기반해서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¹²

11 이재철, 위의 책, 28면.

한편, ‘한국’도 문제 범주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속인(屬人)·속지(屬地)·속문(屬文)주의 원칙이 당연시되었다. 즉 한국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쓴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었다. 고전문학 쪽에서만 잠시 한문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디아스포라 문학과 이중어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문학 쪽에도 해외로 이주한 교포작가의 작품과 일제 말 내선일체에 동조한 일본어 작품이 존재한다. 이런 경계의 존재를 역사적 현상의 하나로 본다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배제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3. 시대구분

시대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을 나누는 일이다. 한 시대는 고유의 동질성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시대와 구분된다. 각각의 시대 단위는 특징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시대와 시대를 가르는 길목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한 사건이 우연적 돌발에 그치지 않고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과관계를 드러내게 되면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학사의 전환점은 삶에서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깊다. 그렇다고 문학사 시대구분이 오로지 정치적 사건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큰 전환점은 정권의 변화라든지 민중봉기 같은 정치적 사건이 차지하고 작은 전환점은 걸작의 탄생과 문단 변화 같은 문학적 사건이 차지한다. 시대구분은 문학사의 뼈대라고 할 수

12 이 말이 아동문학의 문학적 자산으로서 고전문학에 대한 탐구 의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만 근대 이전의 양상은 아동문학의 전사(前史)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있다. 각 시대에 붙인 명칭은 서술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재철의 시대구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문학의 출현 곧 역사적 기원의 문제를 성인문학과 동일한 차원의 근대 기점 문제로 치환한 한계를 먼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시대 설정에서 드러나는 서술의 시각이다.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의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다.¹³

I. 아동문화운동시대(1908~1945)

1. 현대아동문학의 태동(1908~1923)
2. 형성의 양상(1923~1930)
3. 문학성의 발아(1930~1945)

II. 아동문학운동시대(1945~)

1. 진통 속의 모색(1945~1950)
2. 대중취향의 팽배(1950~1960)
3. 본격문학의 전개(1960~)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해방 이전과 이후를 각각 ‘아동문화운동시대’와 ‘아동문학운동시대’로 설정한 점이다. 얼핏 보기에 해방 전의 아동문학을 ‘아동문화운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시기의 아동문학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소년운동을 매개로 민족사회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해방 전을 ‘아동문화운동시대’라고 명명한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13 이재철, 위의 책, 20면.

그러나 이것이 해방 후의 ‘아동문학운동시대’와 대비되는 시대 설정으로 기능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문화’와 ‘문학’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의미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재철은 ‘태동, 형성, 성장, 수난, 팽창, 정리’ 등 진화론적 발전사관에 입각한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문화’는 ‘문학’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니만큼 둘을 발전사관에 입각해서 대비시키면 후자가 한층 정제된 알맹이로 인식되는 효과가 빚어진다. 문화운동은 미분화 단계로 떨어지고 문학운동은 전문화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다. 잘 보면 전자는 비순수요 후자가 순수라는 인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철의 해명을 들어보자.

먼저 아동문화운동시대와 아동문학운동시대라는 두 시대의 설정은 전자의 시대가 아동 문학을 통한 문화운동의 성격이 지배적이었고 문학적 활동의 가치 규범이 계몽적 문화운동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후자의 시대는 이를 극복한 여건에서 전개되는 아동 문학의 예술적 차원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학운동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¹⁴

“아동 문학을 통한 문화운동적 성격”은 자기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아동문학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에 “예술적 차원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학운동적 성격”은 이런 “계몽적 문화운동성”을 탈각한 자기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모로 문학의 자율성에 관한 이론을 상기시킨다.¹⁵ 이재철은 해방 전의 문화운동에 관한 한 “극복”의 대상이지 비판

14 이재철, 위의 책, 34면.

15 이재철은 문학과 삶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순수주의적 관점으로 문학의 자율성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근대적 문학 개념이 확립된 이후의 문학운동은 유평과 경향의 차이를 드러낼 따름이지 이미 문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문학 부문’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철이 ‘아동문화운동’이라고 이름붙인 해방 전의 아동문학운동은 현실초월성을 앞세운 탈현실의 순수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대상황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함

의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인다. 말하자면 시대 설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차별화한 셈이다. 여기에는 좌파는 배제하되 우파는 구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해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순수주의라는 이질적 요소가 손쉽게 봉합된다. 사회주의와 대립한 민족주의 우파에 한해 비순수를 용인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은 어디에서 연원했는가?

1960년대 이후를 ‘본격문학의 전개’라고 이름붙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격문학’은 김동리, 조연현 등 ‘문협정통파’가 사회참여파와 논쟁하는 가운데 의미가 굳어진 것으로 ‘순수문학’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¹⁶ 한편으로는 통속성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문화운동’, ‘문학운동’, ‘본격문학’의 맥락적 의미가 보다 선명해진다. 해방 전을 ‘아동문화운동시대’, 해방 후를 ‘아동문학운동시대’, 1960년대를 ‘본격문학의 전개’로 설정한 시대구분은 사회참여파를 배제 또는 격하시키면서 순수파의 성과만을 ‘문학의 전당’에 들어서게 하는 정전화(正典化)로 이어진다. 이재철의 아동문학사가 조연현의 문학사와 짝을 이룬다는 지적은 무엇보다도 이런 점에 근거한다.

이재철의 시대구분은 ‘본격문학’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발전과정에 대한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전에는 태동과 형성 단계를 거쳐 ‘문학성의 발아’까지 나아갔고, 해방 후에는 이념대립의 진통과 대중취향의 팽배라는 난관을 거쳐 ‘본격문학의 전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소년』(1908)의

의 징표일 수 있다.

16 원래 ‘본격문학’은 파시즘의 위기가 고조된 1930년대에 카프 계열의 임화, 안희남 등이 ‘세대소설’과 구별되는 ‘본격소설’을 논하면서 의미가 주어진 것으로 리얼리즘의 문제의식을 내포한 개념이다. 그런데 해방 후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김동리, 조연현 등이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순수주의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본격문학’과 ‘순수문학’은 일차 비슷한 개념 혹은 쌍생아인 양 여겨지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본격문학’은 ‘문협정통파’의 논리에 의해 맥락적 의미가 뒤바뀐 것이다.

창간 시점부터 『어린이』(1923)의 창간 시점까지를 태동기로 잡은 것은 수긍이 된다. 하지만 1923년부터 8·15해방까지의 시대구분에서 1930년을 기준으로 ‘형성의 양상’과 ‘문학성의 발아’로 나눈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일제 말의 ‘암흑기’는 괄호에 넣었다고 치더라도 1930년은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확산 시점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재철도 1930년대 아동문화운동을 개관하면서 ‘프로문학의 성행과 그 영향’을 첫 번째 항목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두 번째 항목으로 내세운 ‘근대적 문단의 형성’을 더 주목한 듯하다.

1923년 『어린이』의 창간 시점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의 기간을 둘로 나눌 때 1930년을 가장 큰 전환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가? 시대구분은 연속성 문제와 관계되므로 소년운동과 분리된 1935년경부터 아동문학의 양상이 확연히 바뀐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소년운동과 깊숙이 결합된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가 1935년경 모두 폐간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재철은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대해 ‘순수주의 아동문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반면교사’로서 의미가 주어진다고 폄하했으나,¹⁷ 계급문학 시비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대립한 성인문학 쪽과 달리 아동문학 쪽에서는 계급문학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이었다. 이 흐름은 비약일지언정 1920년대 아동문학과의 연속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재철은 프로문학과 성격을 달리하는 구인회와 시문학과와의 등장을 주목한 조연현의 문학사처럼 1930년대를 프로문학 이후의 순수문학 시대로 설정하려는 의욕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8·15해방과 6·25전쟁의 문학사적 의미에 관한 것도 논란거리다. 8·15해방을 가장 큰 전환점으로 보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연속성

17 이재철, 위의 책, 172면.

문제로 들어가면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8·15해방을 시발점으로 하는 문단 재편이 6·25전쟁을 거치고서야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동족상잔을 치른 뒤에는 이전 작가·작품의 절반가량이 금기시되었다. 사상의 일방통행과 더불어 창작 경향의 변화가 뒤따랐다. 미군정기는 물론이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은 6·25전쟁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6·25전쟁은 8·15해방 못지않은 중요한 결절점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은 남북으로 재편된 문단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분단문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었거니와 이를 계기로 냉전이데올로기가 전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문학이 월북·재북 문인의 유산과 단절된 시점은 8·15해방이 아니라 6·25전쟁이었다. 엄밀히 말해서 6·25전쟁 이후는 절반의 문학사 혹은 분단문학사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을 아우르는 문학사 시대구분 및 서술방법론은 또 다른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과 이후의 문학사를 따로 서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비록 잠정적인 방안일지라도 이럴 경우 하나의 체계를 지닌 서술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¹⁸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6·25전쟁 이전까지의 아동문학사를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이 가능하다.

1. 문학의 근대적 전환과 아동의 발견(1908~1923)
2. 아동문학의 성립과 소년문예가의 진출(1923~1930)

18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서술 체계'는 '해방기'를 분단국가 성립의 과도기로 바라보고 주요 대상을 수도 서울이 있는 38선 이남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결과이기에 '잠정안'이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본고는 8·15해방부터 6·25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아동문학을 다루는 데에서 평양 중심의 '북조선문학'을 제외한 서울 중심의 '조선문학'을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남조선문학'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도 6·25전쟁 직후부터 쓰였다.) 문학사의 연속성 문제와 관련해서 '해방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시기는 두 국가 체제의 분단문학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38선을 경계로 해서 서로 다른 역사가 진행되었다. 분단시대의 문학사를 쓰고자 할 때에도 이 시기는 맨 앞에 '중첩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3.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전성기(1930~1935)
4. 소년문예운동의 쇠퇴와 창작의 전문성 강화(1935~1940)
5. 전시체제 하의 소국민문학(1940~1945)
6. 새나라의 꿈과 좌절(1945~1950)

이 구분은 문학장(場)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문단 안팎의 사정과 맞물린 주요 정기간행물의 창간과 폐간, 그리고 지배적인 경향의 발흥과 쇠퇴 등을 함께 고려했다. 각 시대를 구분 짓게 하는 주요 사항을 간추려 보자.

첫째, 최남선에 의해 1908년 『소년』이 창간되고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 등을 거치는 동안 근대적 문학 개념이 확립되고 아동독자가 주목되었다. 이는 아동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해당한다.

둘째, 아동문학의 성립과 전개는 ‘아동독자, 전문작가, 아동매체’의 지속성으로 보장된다. 1923년경 ‘소년운동, 색동회, 『어린이』’를 하나로 묶어 세운 방정환에 의해 아동문학운동이 대대적으로 출범했다. 『어린이』에 이어 『신소년』, 『별나라』, 『아이생활』 등 아동잡지가 속출했다. 아동문학의 개척자들은 소년운동을 이끌었으며, 소년운동 안에서 자생적으로 소년문예운동이 일어나면서 소년문예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셋째, 1930년경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전성기가 도래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식민지 아동의 비참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순간 대세를 이루었다. 동심 파악을 둘러싸고 비평의 활기가 더해졌으며 현실의식이 진전했으나,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선악구도에 대입시킨 이분법적 도식의 계급주의가 만연했다. 독자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약하나마 유년문학도 고개를 들었다.

넷째, 1935년경 안팎의 사정으로 소년운동이 수그러들자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가 폐간되었다. 소년운동의 젖줄이 끊긴 아동문학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소년운동과 함께 소년문예운동이 가라앉으면서 창작은 한층 전문성을 띠게 되었다.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키려는 통속적 경향, 일상생활에 다가서려는 사실적 경향, 현실을 우회하려는 동심적 경향 등 다양하고도 개성적인 분화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1940년경 『동아일보』, 『조선일보』, 『소년』 등이 폐간되었다. 일제와의 타협으로 유지되던 『아이생활』을 무대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에 동조하는 소국민문학이 등장했다.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문단 규모는 현저히 축소되었고, 창작의 영역 바깥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문인들이 생겨났다.

여섯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완전한 독립과 새나라 건설의 꿈을 품은 아동문학운동이 새롭게 펼쳐졌다. 그러나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과 군정이 시행된 탓에 남북 대결 구도와 함께 이념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학생』, 『새동무』, 『어린이나라』, 『진달래』, 『아동구락부』 등 대부분의 아동잡지들은 좌우합작 노선을 지향했다. 이 흐름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6·25전쟁으로 끊기게 된다.

4. 시각과 기준

문학사는 사실의 순차적 나열이 아니라 선별을 통한 의미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각과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기실 모든 문학사는 서술자의 이름을 딴 ‘누구의 문학사’로 존재하는 법이다. 이재철은

“작가를 둘러싼 모든 문학적 자원의 사적 정리를 위하여 역사적 조사연구(historical research)의 방법을 차용할 것이며, 작품을 둘러싼 모든 해석과 역사적 의의를 묘출하기 위하여 역사적 비평(historical criticism)의 방법을 동원할 것”¹⁹이라고 문학사 방법론을 제시했다. ‘문학’과 ‘역사’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그는 “우선 일차적인 아동문학적 사료의 정리와 체계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오늘날 아동문학의 현상을 극복 지양하려는 필자의 의지가 사관으로 구축되어 사적으로 서술될 것”²⁰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문학사 서술의 목적이 문학적 자산의 평가와 정리를 통한 반성적 사유에 있다고 볼 때, 이런 진술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사료의 선택, 배열, 해석, 평가, 의미화 등을 결정하는 시각과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앞서 시대구분에서도 어느 정도 살펴보았지만,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는 크게 두 개의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반공 민족주의’ 지향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순수주의’ 지향이다. ‘반공 민족주의’와 ‘순수주의’는 ‘문협정통파’의 ‘민족+문학’ 개념을 떠받치는 주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를 관통하는 시각과 기준이었다.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를 관통하는 시각과 기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먼저 ‘한국’은 단순히 영토의 범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이념을 대표하는 국가 명칭이기도 해서 상호 이질적인 민족 담론이 그 안에서 각축을 벌였다. 이재철은 ‘반공 민족주의’에 입각한 선별과 배열로 ‘한국’의 아동문학사를 구성하려 했다. 그리하여 해방 전의 아동문학에 6·25 전쟁 이후의 반공이데올로기가 투사되었고 그에 따른 굴절이 나타났다.

19 이재철, 위의 책, 17면.

20 이재철, 위의 책, 18면.

방정환, 마해송, 윤석중 같은 정전작가의 좌파적 요소를 제거하고 우파적 요소만 강조한 것,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같은 주요 아동잡지를 역사적 맥락에 의거하지 않고 좌우 이항대립에 의거해서 형식론적 삼분구도로 정립한 것,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운동의 주역들과 정지용, 이태준, 박태원, 현덕 같은 월북작가를 배제 또는 격하한 것 등에서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²¹ 1930년대 신인작가 중에서는 현덕이 아니라 이구조를 최고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선별과 배열은 냉전시대의 제약도 감안해야겠지만 6·25전쟁 이후 ‘문협정통파’를 중심으로 재편된 주류문단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문학’을 보는 시각 역시 사회참여파와 순수파의 대립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이재철은 이원수가 한국문인협회에서 독립하려고 설립한 한국아동문학가협회(1971)에 잠시 몸담았던 만큼 마해송, 이주홍, 이원수 등의 현실적 경향에도 눈길을 주었으나 기본적인 시각은 ‘문협정통파’의 순수주의였다. 그의 아동문학사는 1960년대 ‘본격문학’의 전개에 이르는 궤적을 역(逆)추적하는 선별과 배열로 뼈대가 세워져 있다. 1960년대 ‘본격문학’에 관한 부분을 보면, 비시적 동요를 극복하려는 ‘본격동시운동’과 환상을 동화의 본질로 여기는 ‘본격동화운동’이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쉽게 말해서 ‘자유동시’와 ‘환상동화’의 전개를 목표점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 동시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용과 동요에서 동시로의 이행을 처음 주장한 신고송을 배제하고 윤석중, 박영중(목월), 김영일 등을 중심으로 동시의 계보를 그려낸 것, 특히 김영일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자유동시론의 선구자임을 부각시키고 『아이생활』에 발표된 친일동시를 덮어둔 것, 원전비평을 생략한 채 마해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어린이』, 1926.1)을 ‘최

21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참조.

초의 창작동화’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탐미성과 환상성을 내세운 것 등에서 이런 구도를 엿볼 수 있다.²² 그러나 순수주의로 전유한 ‘본격문학’ 이전의 또 다른 대표작들은 운문이건 산문이건 시대현실과 깊숙이 교섭하는 가운데 생산된 것들이고, 이 ‘아동문화운동시대’의 성과는 순수문학운동을 뜻하는 ‘아동문학운동시대’의 성과보다 질적으로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재철 이후의 아동문학사가 의미를 지니려면 어떤 시각과 기준으로 서술되어야 하는가?

첫째, 올바른 역사주의 시각이다. 아동문학의 성립과 전개를 근대성의 문제로 바라보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한 고찰이어야 한다. 한국의 근대 경험은 여느 나라와 같지 않았다. 특히 “동아시아의 근대 주체 형성의 기획”²³으로 ‘소년’이 호명되었다는 점은 한국 아동문학의 기원뿐 아니라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참조점이다. 식민지로의 전략은 근대 기획의 ‘미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제에 의해 근대에 강제로 편입된 상황에서 자주적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근대 기획은 여전히 유효했다. 한국 아동문학이 일본의 영향으로 전개되었으면서도 기본 성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에서처럼 ‘동심’으로의 전도(轉倒)가 전면화할 수 없었다. 아동문학은 소년운동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아동의 생애주기가 여느 근대국가와 달라서 소년은 생산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소년은 아동문학의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호명되었으며, 일하는 아이들의 곤핍한 삶을 대변하는

22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참조.

23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38면.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한순간 대세를 이루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아동문학이 안고 있는 강력한 계몽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문학적 형상에 의탁해서 현실적 경향으로 발현된 계몽성에 대해 역사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화·도시화 정도가 매우 미약한 단계에서는 아동문학의 수요 창출이 쉽지 않았다. 개인 창작집보다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다. 지속적으로 간행되는 아동잡지는 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유과와 계보의 형성에 깊숙이 작용했다. 도시중산층의 미발달로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핵가족 생활양식도 쉽게 정착할 수 없었다. 식민지시대의 아동문학은 곧 소년문학이었다. 주된 독자 연령이 십대 중·후반에 달했고, 이는 장르 발전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그림책과 환상동화가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십대 소년독자에게는 소년소설의 가치가 훨씬 높은 법이다. 인고와 헌신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쿠오레 경향’이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대표하는 ‘피노키오 경향’을 압도했다. 자유율의 동시는 노래로 전파되는 동요를 넘을 수 없었다. 민족 정서를 대변하면서 국민가요로 애창된 식민지시대의 동요는 오늘날과 위상이 판이하게 달랐다. 이런 한국적 특성을 제대로 해명하려면 역사주의 시각이 필수적이다.

둘째, 탈냉전의 시각이다. 냉전이테올로기는 낡은 문제로 여겨지기 쉬운데,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면화되면서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냉전이테올로기라는 색안경을 끼고 해방 전의 아동문학을 바라보면 착시 현상이 불가피하다. 탈냉전의 시각은 남북 대결 구도가 초래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6·25전쟁 이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유지대가 사뭇 넓었다. 한국문학을 양분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미적 자율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참여파와 순수파의 대립 등은 정치지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

다.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통용되는 해방 전 아동문학사를 살펴보면 민족 공통의 정전을 찾아보기 힘들다.²⁴ 하지만 대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달리할 뿐이지 이분법적 구도로 계열화·정전화를 이룬 점은 공히 똑같다. 그 사이에서 실종된 주요 작가와 작품을 복원하고 전통을 새롭게 확립하는 일은 아동문학사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 지배체제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이루어 왔다. 냉전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남북한 주류 아동문학사의 양대 편향을 동시에 넘어서는 시각이 중요하다.

셋째, 미완의 근대 기획을 바라보는 데에서 탈근대·탈식민주의 시각도 중요한 참조점이다. 탈근대·탈식민주의 시각은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성에 내재된 억압의 질서와 차별의 시선, 그리고 식민화가 남긴 문화적 지배 효과들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식민지시대의 ‘쿠오레 경향’으로 대표되는 헌신과 희생을 미덕으로 하는 민족주의 서사가 비록 일본과는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는 것일지라도 군국주의·제국주의 서사와 상통하는 구조임을 지나칠 수 없다. 선전성과 동원성이 강한 카프문학/항일혁명문학, 친일문학/국민문학, 주체문학/반공문학 등은 역사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꼭짓점 하나 바꾸는 것으로 얼마든지 호환 가능한 구조를 지녔다. “카프문학 내부에도 일부 친일문학을 거쳐서, 날조된 항일혁명문학에 기초한 북한의 주체문학에 이르는 회로가 아주 없지는 않았”²⁵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거니와, “일제 말 태평양전쟁기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소국민” “충후”와 같은 어휘들이 한국전쟁기의 임시교과서 『새음악』(윤이상·김영일 엮음, 대한군경원호회 경남지부, 1952)에 실린 김영일의 반공동시에서 되풀이 등장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²⁶

24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참조.

25 원종찬, 위의 책, 10면.

26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249면.

탈근대·탈식민주의 시각은 친일문학 연구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었는데, 식민잔재 청산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방 후 전체주의적 국가시책에 호응한 남북한 주류문학과 친일문학의 상동성”²⁷을 염두에 둔다면, 똑같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라고 이원수와 김영일의 상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파시즘적 독재정권과 날카롭게 대립한 리얼리즘 아동문학 계열의 구심이었던 이원수와 반공주의 지배담론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김영일의 문학적 유산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계승 또는 청산해야 할지”²⁸ 속속들이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주체와 타자의 관계 또는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가 바뀌는 것에서 문학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드러난다.

넷째, 실증적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과거 사실을 다룸에 있어서 실증의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의무사항에 속한다. 현재성이 중요하다지만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자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실증을 강조한 이재철의 아동문학사도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대목이 곳곳에 숨어 있다. ‘최초의 창작동화’로 명명된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작품 연보, 『별나라』의 계급주의 선회 과정, 김영일의 자유시론 제창 시점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런 취약성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순수주의와 반공 민족주의에 입각한 계열화·정전화 도식을 그리려다 미끄러져 들어간 오류가 아닐 텐가. 문헌자료에 대한 원전비평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라고 하겠다.

다섯째, 작품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교육학이나 사회학이 아닌 문학의 관점이 확고해야 한다. 한국아동문학사는 다름 아닌 한국문학사의 일부이다. 한국에서 아동문학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어떤 역할을

27 원종찬, 위의 책, 153면.

28 같은 곳.

했는지를 살피는 일은 아동문학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그간의 시각 가운데 ‘동심천사주의’나 ‘교훈주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런 문제점은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해서 성인의 시선으로 타자화하는 ‘식민화’²⁹의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얼리즘에 미달인 계급주의 아동문학도 ‘작가=이성적 주체=문명’ 대비 ‘아동=비이성적 타자=야만’이라는 계몽의 위계질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방향의 구도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교훈주의 병폐로 통한다. 문학은 시대의 산물이지만 시대를 넘어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어린이에게 문학이 필요한 것은 문학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학적 효과와 가치 때문인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아동문학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고 만다. 물론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성인문학과 구별되는 저만의 장르적 속성을 지닌다. 아동문학의 미학적 자질에 대한 탐구를 멈출 수는 없다. 한국아동문학사를 한국문학사에 조응하면서 ‘따로 또 같이’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5. 마무리

세상에 완벽한 문학사는 없다. 보편타당한 시각의 한국아동문학사는 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문학사는 진행형의 텍스트이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시각으로 서술된 ‘누구의 문학사’일 따름이다. 본고의 서술 방법론도 ‘복수의 문학사’를 감안한 시도의 하나이다.

29 페리 노들먼, 김서정 옮김,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시공주니어, 2001, 166면.

본고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필자가 서술하려는 아동문학사는 일차적으로 근대이행기부터 6·25전쟁 이전까지를 범위로 한다. 기본갈래는 동요, 동시, 동화, 아동소설, 동극 등이다. 창작자와 수용자의 범위는 오늘날과 적잖이 차이가 난다. 이 기간의 아동문학 독자는 취학 아동으로 제한되지 않기에 십대 후반의 노동청소년까지 포함된다. 또한 소년문예가의 창작이 전문작가의 창작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잡지나 신문지상에 발표된 아동의 창작물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아동문학 개념과는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아동문학사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대의 위계질서와 차별적 시각으로 구성된 중심을 해체하고 타자를 복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주의 시각, 탈냉전의 시각, 탈근대·탈식민주의 시각, 엄밀한 실증적 방법, 확고한 문학적 관점 등이 요구된다.

크게 보자면 한국아동문학사는 미완의 근대 기획을 완수하려는 지향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20세기 내내 근대적 과제의 해결이 최대 현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말처럼 한 시대 안에서 다양한 문학적 경향들이 공존하며 경쟁을 벌여 왔다. 그 각각에 대한 평가와 자리매김은 현재의 문제의식을 좇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예컨대 식민지시대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유년문학, 그림책, 판타지, 유희성 등을 보는 시각이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 ‘민족’이나 ‘국민국가’ 같은 말은 거의 추문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상황을 돌아볼 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가 얼마나 절실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알고도 남을 일이다. 근대는 유동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근대의 해방적 기능에 눈감고 억압성만 보려는 것은 온당치 못할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른바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를 어떻게 동시에 밀고 나갈 것인가? 다소 추상적인 표현

일는지 몰라도 ‘근대와 탈근대의 긴장’을 감당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민족’ ‘문학’ ‘역사’를 보는 시각뿐 아니라 ‘아동’을 보는 시각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모로 오늘날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임이 틀림없다. 본고가 감당하려는 두 겹의 요청, 즉 20세기적 편향에 의해 가려지고 구부러진 과거를 제대로 복원하는 일과 이를 21세기적 시각으로 수행하는 일 가운데 후자가 현저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느낀다. 정진화는 탈정전화·재정전화와 분리되지 않으며, 문학사 서술은 또 다른 문학사 서술로 이어진다는 역사의 법칙을 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가와하라 카즈에, 양미화 옮김,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2007.
- 류덕희·고성희, 『한국동요발달사』, 한성음악출판사, 2006.
- 석용원, 『아동문학원론』(증보판), 학연사, 1992.
-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 유경환, 『한국현대동시론』, 배영사, 1979.
- 윤석중, 「한국아동문학소사」, 『아동문학의 지도와 감상』, 대한교련, 1962.
-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 이재복, 『우리 동요 동시 이야기』, 우리교육, 2004.
-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1995.
- 이재복, 『우리 동화 이야기』, 우리교육, 2004.
- 이재철, 『개고판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83.
-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문운당, 1967.
-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3.
-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연구』, 개문사, 1988.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사의 시대구분 시고」, 『대구교대 논문집(인문과학편)』 1집, 1965, 81~100면.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화사, 1956.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 페리 노들먼, 김서정 옮김,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시공주니어, 2001.
-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Abstract

A Study of a Method of Defin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Discussion of Styles since Lee Jaechul

Won Jongchan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a progressive texture that can always be re-defined by the contemporary variables. However, the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was solely defined by Lee Jaechul half a century ago. Many studi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field of children's literature, so we are in a desperately need of a new defin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The key point is to establish a method of definition in the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with a consistent perspective and system.

The method of definition that reflects the contemporary issues can be clarified by contrast with the previous method of definition. As Lee Jaechul's definition is the only existing definition, this study examined each item to seek an alternative. The items discussed include scope, genre, time period, perspective, and standards.

The point is tha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children's literature should be addressed from the views of modern issues based o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n history. Korean children's literature developed with a unique trend because of the restrictions of the Japanese Imperial Rule. The major readers of children's literature

were in the mid to late teens. Young authors were very active, so children were both the consumers and producers of children's literature.

Broadly, the history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has developed with the pursuit of completion of modern plans. This study has clarified that a righteous historical perspective, the perspective of post-cold war, the perspective of post-modernism and post-colonialism, a strictly substantial method, and a solid literary perspective in order to discuss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 Keywords: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Method of Definition, Lee Jaechul , Time Period, Japanese Imperial Rule, Historical perspective, Post-Modernism, Post-Colonialism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